

8 기획

무전공 입학 확대 기대 혹은 우려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제 추진으로 대학가가 시끄럽다. 무전공 제도란 학과나 학부 구분 없이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우리신문은 무전공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향을 연속기획을 통해 살펴본다. 이번 호는 그 처음 순서로 해당 제도의 장단점, 시행됐을 시 우려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학문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학과나 전공 간 벽을 허물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무전공 선발 유형은 유형 1과 유형 2 두 가지로 나뉜다. 유형 1은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보건의료와 사범계열 등을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유형 2는 신입생을 계열·단과대 단위로 모집 후, 계열·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성과급은 유형 1과 유형 2에 해당하는 가점을 합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차등 지급된다.

무전공 제도 확대 피할 수 없는 흐름

김중백(사회학) 교수는 무전공 제도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전공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태반인 상황에서 굳이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며 “앞으로 몇 개의 직업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공으로 스스로를 묶는 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된 세미나와 같은 충분한 기회 제공이나,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에 대비해 특정 학과의 일부 과목을 다른 과 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무전공 제도 확대에 따른 준비를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영복(스페인어학) 교수는 입시 결과(입결)가 가장 낮은 과에 진학해 컴퓨터공학 등 인기 학과로 전과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을 들며 무전공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교수는 “스페인어학과에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며 “입결이 가장 낮은 과에 먼저 진학해 공대로 전과하는 것인데, 학생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무전공 제도 확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존재 이유 상실’ 우려도 존재

하지만 일각에선 특정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실제로 올해 처음 시행된 우리학교 광역모집의 최초 합격자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과학광역 합격자 중 약 81%가 경영대학을 선택했으며, 생명과학광역 합격자 중 약 95%가 유전생명과학과를 선택했다.

이선이(한국어학) 교수는 다양한 학문의 결합은 창발성의 극대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며 대학은 이를 위해 기초학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교수는 “대학은 학문적 다양성이 공존할 때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지성의 산실이 될 수 있다”며 “현재 IT 분야나 경영학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 현상이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며, 이러한 인기 전공 분야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학문 분야와의 대화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취업에 유리한 전공으로의 쏠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며 무전공 제도의 취지가 실제 대학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정은(사학) 교수 또한 기초 학문 보호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인문학은 상상력을 키워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하는 기초 학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해당 기초 학문을 탄탄히 배운 후 기술이나 공학과 같은 분

설문 - 무전공 입학

설문정보

- 대상 : 경희대학교 전체 구성원
- 조사기간 : 2024.3.11.~3.13.
- 응답자 : 213명 (교수 81명, 학생 87명, 교원 38명, 동문 및 기타 7명)
- 조사방법 : 경희대학교 대량메일 및 설문시스템을 이용한 이메일 설문조사

Q1. 무전공 입학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58.2%



잘 안다

34.8%



이름만 안다

7%



모른다

Q3. 무전공 입학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진로탐색에 도움

33.3%

융합형 인재 육성

25.5%

대학 인센티브 지급

8.5%

학습선택권 확대

32.7%

기타

0%

Q2. 무전공 입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44.6%

반대

55.4%

Q4. 무전공 입학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기초학문 붕괴

17.9%

특정 전공 쏠림 현상

25.3%

교육의 질 저하

10.9%

대학 서열화 고착

7.4%

제도 논의까지 시간 부족

8.8%

전공교수 채용 및 대학원생 총원 문제

9.0%

학과 내 교류 부족

4.2%

복수전공과 전과제도로 충분

15.2%

기타

1.3%

무전공 입학에 대한 응답자 소속별 의견

구분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및 기타
찬성	37.0%	48.3%	55.3%	28.6%
반대	63.0%	51.7%	44.7%	71.4%

※ 주관식 응답



현재 자율전공학부, 복수전공, 전과제도로 충분하다.



인기 학과로만 사람이 몰리고 비인기 학과는 없어질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인 적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생 개인의 적성 및 진로탐색의 기회가 주어져 형평성 있는 제도 내에서 찬성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공을 정하기까지 더 많이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어 무전공 입학 확대를 찬성한다.



입시로 청소년기에는 진로 탐색을 잘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한 구성원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대량메일발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했으며 총 213명이 답했다.

아에서도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전공 제도 의미 있는 제도가 되려면 단계적 접근 필요

신입생이 1년간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봄으로써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리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답한 한 사람은 “1학년 과목과 고학년 과목의 분위기가 다르다”며 “신입생이 1학년 과목을 수백 개 들어본다고 해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전했다. 조정은(사학) 교수 또한 “한 전공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많은 경험과 배움이 필요한데 무전공 제도

는 오히려 어떤 전공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지레짐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탓에 무전공 제도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주희(국문학) 교수는 “무전공 입학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이지 열린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미디어학) 교수 또한 “무전공 제도는 입학 후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환경 변화 속에서 예상하기 쉽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실제 도입 시 도입 후 이점과 장기적인 부작용, 의도되지 않은 효과 등을 살펴보고 어느 정도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학생 수 감소,

문·이과 교체 지원 가능, 의대 학생 수 증원 이슈 등 대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현(미디어학 2021) 씨는 다원화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무전공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씨는 “단일 학과나 학문으로 사회를 단순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전공 제도의 의의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을 미루고 이도저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해당 제도가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처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밝혔다.